

주간기도정보

2024. 2. 27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자손에게 일러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위기의 한국·다음세대를 일으키소서”...교단·교파 초월 연합기도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개최, 다음세대 위해 한목소리 기도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을 알고 기억하는 다음세대를 세우게 하소서” 다음세대와 이 땅의 회복을 바라는 한국교회의 기도는 간절했다.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합기도회는 다음세대를 세우고 한국교회 부흥을 바라며 교파를 초월해 7천여 목회자와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3시간여 동안 한국교회 연합과 다음세대의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

‘다윗의 도전처럼’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이찬수 목사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전략이 반복이다. 동성애, 동거, 마약 등 서구에서 들어온 문화가 미디어 등을 통해 계속 반복 노출되면서 우리 사회를 중독·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런 세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론적 이론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면서 “다니엘과 다윗은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도전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다. 다음세대에게 이같은 도전정신을 심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날 기도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고 국가적 문제해결에 동참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미래의 최대 위협으로 ‘저출산 문제’가 꼽히는 가운데 교회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양규 한동대 명예교수는 “올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 기록인 0.68명으로 전망되고 2030년이면 교회의 90% 이상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힘을 모으면 저출산의 위기를 막고 다음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훈 동일교회 목사도 “교회는 이미 아이를 돌볼 시설과 인적 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환경을 갖춘다면 다음세대 걱정은 없다. 돌봄센터를 운영하려면 많은 운영 기금이 들어가므로 교회에서 이 역할을 대신하면 국가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가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다면 공동대표 한기재 목사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처럼 다시금 헌신과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 에벤에셀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기독교 인구 급감, 비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자”고 말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다(시편 78:6-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린도전서 1:18)

하나님, 교회에 다음세대가 급감하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며 초저출산의 위기까지 겹친 절박함을 인식하고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난무하고 믿음이 조롱받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잊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음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인 방법에서 돌아서서 복음을 전부로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손들에게 증인 되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주여, 이때 한국교회에 참된 부흥을 주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삶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자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람답도다”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남북민 통합 기대

탈북민들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도 희망의 메시지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한 가운데, 통일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오전 진행된 국민통합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특위’ 출범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통일 이후 남북 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탈북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했으나 사실상 남북한 주민의 통합보다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남북 주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단순히 탈북민을 위한 문화행사의 날이라기보다는 남북 주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탈북민에게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올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 공간을 함께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는 탈북민이라는 용어 대신 ‘북 배경 주민’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탈북민 출신 해외 1호 박사’라 불리는 최경희 샌드연구소 소장은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해 “탈북민과 북한 주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통일에 대한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일가의 생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지만, 한국에서는 탈북민을 위한 기념일을 제정한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에게는 큰 충격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데일리NK, VOA 종합).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 로다(시편 133: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에베소서 2:13-14)

하나님, 정부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탈주민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힘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념의 날을 통해 탈북민과 국민 사이의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고, 북한 정권에 돌이킴의 은혜를, 주민에게는 자유의 소망을 염원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랑이 식어진 이 세대에 남북한의 교회가 둘로 하나를 만드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고난에 매이지 않는 복음으로 증인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혼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한 참 행복자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전심으로 달려가는 주의 용사 되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학원복음화협의회, 새학기 대학교 캠퍼스 이단경계주의보
경계해야 할 이단 명단과 추천 선교단체 목록 공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금 대학 캠퍼스가 활기를 띠고 있는 시점에 이단 단체들의 활동 재개가 예상됨에 따라 이단경계주의보가 발령됐다. 학원복음화협의회(이하 학복협)는 2월21일 ‘2024년 새학기 이단 경계와 건전한 캠퍼스 선교단체 추천’ 공문을 통해 이단의 활동 방식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캠퍼스 이단은 새내기들에게 설문조사와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으로 접근하여 가입을 유도한다. 건전한 기독교 동아리에 침투하거나 새내기들의 클럽에 교묘하게 접근하기도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학복협은 주목해야 할 이단으로 IYF,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JMS,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CBA, 여호와증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 대순진리회 등을 지목했다.

(사)국제청소년연합 IYF(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는 영어 말하기 대회, 명사 초청 강연회, 해외 자원봉사, 글로벌캠프, 국제문화박람회뿐만 아니라 뮤지컬,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적 접근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맘기움, 맘소리, 맘오니 등 육아 커뮤니티를 활용해 포교에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 기간에 너무나 잘 알려진 신천지는 선교단체와 일반교회에 위장 잠입하여 활동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한다. 또 잘 알려진 교회나 선교단체의 이름을 도용하여 성경 공부 모임을 운영하기도 하고, 설문조사와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학기 초에 설문조사를 미끼로 신입생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설문에 응한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후 성경 공부로 인도하여 신천지 교리 교육을 한다. 주로 진로 상담이나 멘토로 접근하기에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중년 여성이나 신학생이라 주장하는 청년들이 '세계복음선교회협회 교육원', '멜기세덱 성서교육원', '엘로힘 아카데미' 등의 이름으로 설문조사 및 태블릿PC를 사용한 UCC를 통해 포교한다는 특징이 있다.

학복협은 “캠퍼스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교회와 자신이 속한 선교단체 외의 성경 공부와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며 “참석하게 된다면 반드시 교회의 사역자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캠퍼스 내에서 이단에 대처할 경우에는 기독교 내 분쟁으로 비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방식을 택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학복협은 추천하는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목록도 공개함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잠언 7:24-25)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데살로니가후서 2:13-14)

하나님, 개강을 앞둔 캠퍼스의 청년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히 속이며 호시탐탐 이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이단 단체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단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선교단체들이 열심을 내어 학생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새내기 학생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사 대학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귀한 복을 허락해 주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과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증인이요, 군사들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